국제갤러리 부산 전시 이후 3년 반 만의 개인전이에요. 1월 26일까지 국제갤러리 서울 K2와 한옥에서 진행하는 <돌과 연기와 피아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3년간 그린 작품들을 모은 전시예요. 이전에도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자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장소들이 등장해요. 미술관 전시장, 레스토랑 주방, 피아노 공장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공간에서 각각 전시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거나 피아노를 만드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의 시간을 담았어요. 2018년에 진행한 <백스테이지>라는 제목의 전시와 같은 결로 접근했어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공간 중에 세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평소 주변에서 작업 소재를 가져오는 편이에요. 미술관 전시장의 장면들은 사실 저의 일상이자 전시를 준비할 때 흔히 보는 모습으로, 2010년부터 그려왔어요. 레스토랑 주방과 피아노 공장은 새롭게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얼핏 보니 국제갤러리 레스토랑 안에 커다란 주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봤어요. 피아노 공장은 음악하는 남편이 독일의 오래된 피아노 제조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같이 가보게 됐어요. 나와 관련은 없지만, 지나가다 흥미를 끄는 곳을 발견하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부탁하기도 해요.

카메라 렌즈로 포착한 순간을 캔버스에 재구성해 그려내는 작업 방식으로 유명하죠. 보통 작업 과정은

2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진은 휴대폰으로 편하게 찍어요. 크기가 작은 작품이거나 사진 자체가 괜찮을 경우 그대로 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진 속 인물들을 원하는 구도로 다시 조합해요. 이 사진에서는 이 사람, 저 사진에서는 저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면 그 둘을 붙여서 그리는 식이에요. 어떤 움직임이 마음에 들어 그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구도상 추가하기도 해요.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면 순간성이 극대화돼요. 작품에 숨겨진 앞뒤의 시간이 더욱 살아나고요. 이러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순간성이 확 드러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전후 상황을 인지할 수 있죠. 나름대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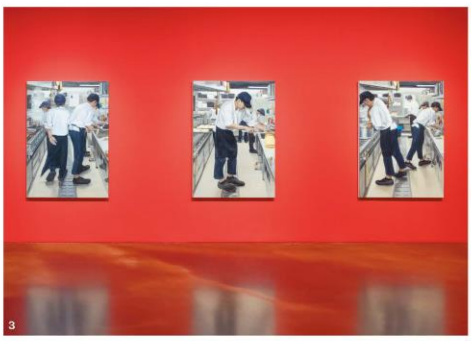
무엇보다 일상에 초점을 두기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들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2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해온 데다 항상 일상 속의 장면들을 그리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재를 선택하게 돼요. 일상의 한 장면을 보고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장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 싶은 순간도 종종 있고요. 늘 '집중해서 관찰해야지'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저에 그런 자세가 깔려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전시 작품 중 가장 좋아하거나 특별히 공들인 작품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작품은 '그림을 바라보는 셋'이에요. '피아노 공장 07'은 어떻게 어디까지 덜어내며 그릴지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들인 끝에 완성한 작품이죠. 저는 비우면서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공장의 특성, 즉 장소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뺄 수는 없다 보니 다른 작품과 달리 묘사가 꽉 차 있는 작품이라 마음에 남아요.

평소 일상은 어떤가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일은요? 전시 직전까지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작품도 완성해야 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일도 많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빈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 이전에 카메라에 담고 싶은 일상 속 장소와 시간이 궁금해요. 피아노 공장은 지난해 4월에 처음 방문했어요. 그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전시의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더 진행해볼 생각이에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공연의 준비 장면이나 규모가 큰 상업 영화 촬영 현장을 볼 기회가 있다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겠다 싶기는 해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회화성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들었어요. 20여 년간 나름대로 정의한 답이 있다면요? 모든 화가는 작품으로 회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각자가 작품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눈으로 본 현실 세계를 그림으로 재현하잖아요. 몸의 움직임, 사진이라는 기술, 나의 인지 과정 등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재해석된 세계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게 회화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 작품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낀다면, 그게 제가 정의하는 회화일 거예요.



1 사진으로 포착한 일상의 순간을 재구성해 화폭에 담아내는 박진아 작가.
2 1월 26일까지 국제갤러리 서울 K2와 한옥에서 박진아 작가의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가 진행된다.
3 레스토랑 주방에서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4 미술관 전시장, 레스토랑 주방, 피아노 공장의 한 장면을 그린 36점의 신작 중 작가가 가장 마음에 남는 작품이라는 '피아노 공장 07'.